

전문인력 단 한명 순천 야생동물구조센터

구조는 커녕 운영 버겁다

예산 지원·공익 수의사 배치 기관 지정 필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순천에 문을 연 전남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예산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 순천시 인월동에 전국에서 2번째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건립했다.

그러나 개관 4개월째를 맞은 전남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예산 부족으로

전문인력이 단 1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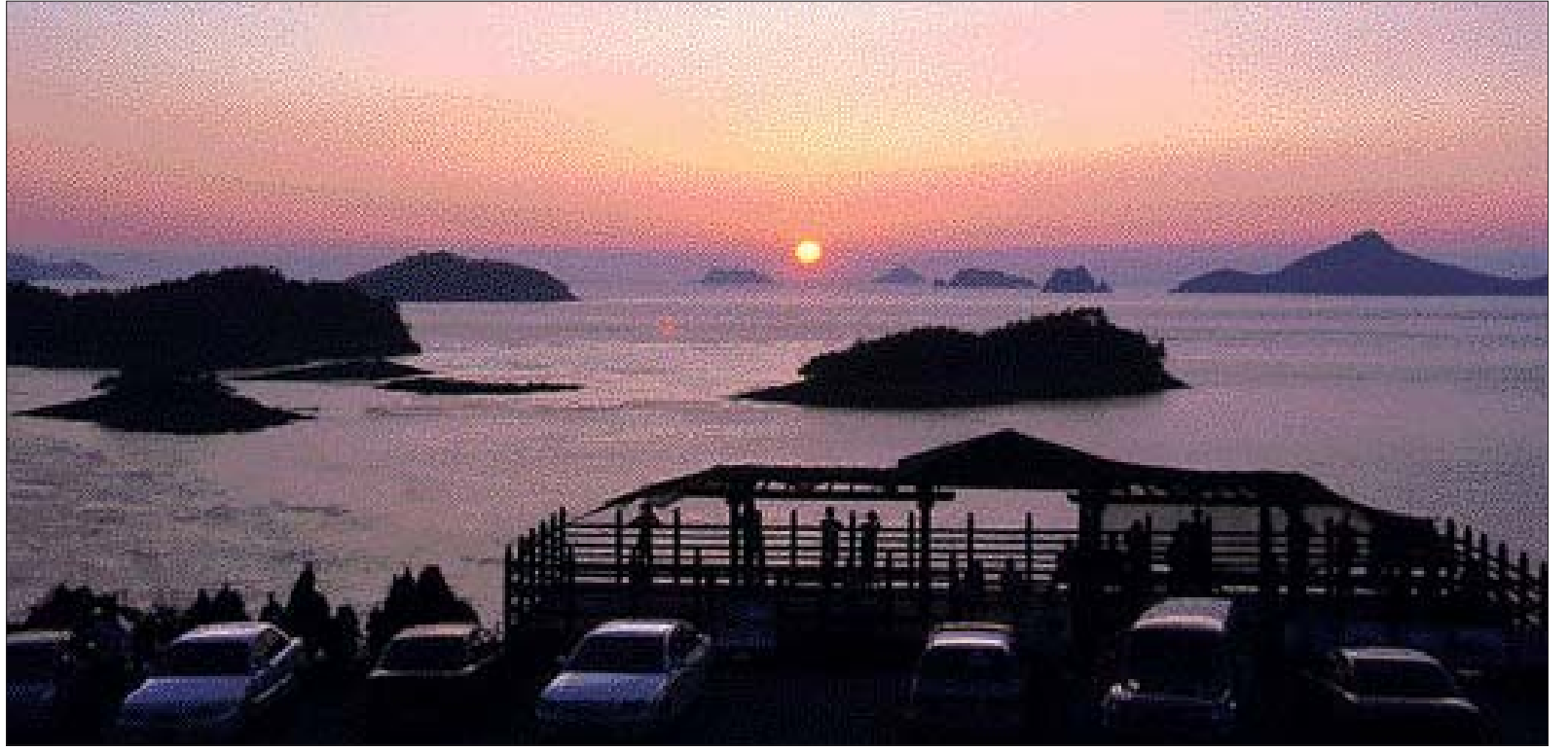
또 혈액 분석장비나 엑스레이 촬영 등 야생동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장비 확보도 시급한 실정이라서 예산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그동안 천연기념물인 검은 독수리와 수리 부엉이 등 150여마리를 치료한 뒤 자연에 돌려보냈으나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전남도와 순천시가 연간 1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야생동물센터가 위치해 있는 순천만 일대는 세계 5대 연안습지로 탐사협약에 등록된 데다 흑두루미 등 겨울철새와 텃새 보금자리여서 인력과 장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익 수의사 배치 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힌 진도군 세방리 낙조 전경.

나주배 수출 올해 30% 증가

두바이 첫 진출 등 수출국도 다변화

올해 나주 배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수출 국가도 다변화된다.

나주시와 나주배 농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본격 수출에 들어간 수출용 조생종 원형과 황금배 선적 등을 시작으로 올해 나주배 3천t을 수출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총 수출실적 1천900여t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이며 수출액은 700만달러로 예상된다.

품종별로는 이미 선적을 끝낸 원형

배 200t을 비롯 선과 중인 풍수 200t, 황금배 500t 등이며 다음달부터 수출에 들어가는 신고배 2천100t 등도 수출된다.

시는 또 수출국도 미국과 대만, 캐나다 등에서 올해 중동 두바이에 첫 진출하기로 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전략도 추진한다.

올해 배 작황은 과일이 한창 숙성되는 6~7월 마른 장마로 비가 덜 온 데다 8월 고온 등으로 병충해가 거의

없어 예년에 비해 좋은 편이다.

시는 이에 따라 평년에 비해 생산량이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출 확대를 통한 내수가격 저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내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조생종 배를 우선 수출함으로써 수출 출하를 막아 가격 폭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주지역은 3천100여농가가 배 2천950여ha를 재배해 연간 7만여t을 수확하고 있으나 올해는 10% 가량 늘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헌혈로 사랑실천

지난 23일 강진군 보건소가 개최한 '2007 하절기 헌혈 행사'에 지역주민 72명이 참여했다. 강진군 보건소는 매년 여름철 이같은 이웃사랑 행사를 열고 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함평 나비엑스포' 국제 곤충학회서 공인

함평군이 개최할 예정인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가 국제곤충학회로부터 세계 최초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행사로 인정받았다.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26일 "국제곤충학회 프란티섹 세날(Frantisek Sehnal) 회장 일행이 함평을 방문해 2008 함평세계나비·

곤충엑스포를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행사로서 인정한다는 인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세날 회장과 토머스 밀러(Thomas Miller)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외 저명 곤충

학자의 함평엑스포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교육·연구 분야에서의 기술제휴와 협동 운영에 나서는 한편 엑스포 곤충 분야의 중요사항과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해 자문한다.

또 내년 4월 열리는 함평 엑스포 기간에 전 세계 곤충학자와 곤충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곤충학술대회를 열어 곤충산업의 메카로서 함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게 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소외된 아이찾아 봉사활동

한전 보성지점 사회봉사단

한전 보성지점 사회봉사단은 지난 23일 보성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

이날 한전 사회봉사단은 육내 전기 설비를 점검하고, 매달 직원들이 심시일반으로 모금한 사회봉사기금으로 구입한 컴퓨터를 설치했다.

보성지역아동센터는 40여명의 결손가정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한전 사회봉사단은 매달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복진 지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 빛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규일기자 gjahn@

멸종위기 식물 대홍란 장성 백암산 서식 확인

내장산 국립공원 구역인 장성 백암산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대홍란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 백암산사무소는 최근 백암산에서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식물인 대홍란을 발견했다. 백암산 대홍란은 20cm 크기에 8개의 꽃봉오리가 달려 있다.

대홍란은 부식층이 두꺼운



나엽활엽수림에서 자라는 난초과 부생식물로, 열목소가 없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썩은 식물체에서 유기물을 얻어 살아가는 기생식물이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로, 분포지역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개체수가 줄고 있는 보호종이다.

최승운 백암산사무소장은 "백암산이 대홍란의 새로운 서식지로 밝혀진 것은 생물다양성 면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가 그만큼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유출 물고기 떼죽음

여수의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지난 25일 오후 2시께 여주시 '만홍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오수처리 펌프가 고장나 침출수 45t이 인근 만홍천으로 흘러들어 잠어·미꾸라지 등 물고기 100여 마리가 죽었다.

신고를 받은 여주시 측은 침출수 유출을 차단하고 고장 난 오수 펌프를 점검하는 등 오후 5시30분께 복구를 완료했다.

시는 이날 3시간여 동안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량과 피해 상황 및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나자 주민 150여 명은 시에 추가 유출 여부 등에 대한 진상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진도대교 지나 낙조 속으로 들어오세요"

'아름다운 길 100선' 중 3곳 진도군, 관광객 유치 나서

진도군이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진도대교 등 지역내 3곳을 관광자원으로 집중 홍보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진도군은 26일 "진도대교와 진도 세방리 낙조 드라이브 도로, 조도대교가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뽑혔다"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3곳이 선정된 곳은 진도군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진도대교는 명랑대점지로 잘 알려진 서해의 길목으

로 진도군의 첫 번째 관문이며 세방리 낙조 드라이브 도로는 한반도 최서남단의 가장 전망 좋은 곳으로 선정될 정도로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또 조도대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로 최적의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진도군은 이들 3곳의 도로 시점과 종점 2곳에 황동주물로 제작된 명패를 설치하는 등 관광 명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은 각계 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예술성 ▲미관성 ▲역사성 ▲기능성 ▲친근성 등 5가지 주제를 평가해 결정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여수 백도 20년만에 속살 드러낸다

31일~9월2일 '은빛바다 축제' 기간중 한시 개방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여수 백도가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축제' 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

한시적이거나 백도가 개방된 것은 지난 1987년 문화재관리청에 의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이래 20년 만에 처음이다.

축제위원회는 "백도 상륙 허가는 축제 기간 동안 더 많은 관광객이 거문도와 백도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백도의 절경과 함께 20년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자연의 비밀을 들여다 볼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명승지 제 7호로 지정된 백도는 기암괴석이 솟아오른 절경과 함께 수십 종의 희귀 새와 3백여 종의 아열대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석란 자생지로 유명하다.

문화재관리청은 환경 보호와 생태 보존을 위해 그동안 백도 입도를 금지해왔다.

군에 이 상륙이 허가되는 지역은 상백도 등대 인근으로, 기존 등산로를 따라 백도의 절경을 둘러보게 된다. 백도 관광을 위해서는 거문도로 여객선을 타고 들어간 뒤 다시 유람선을

이용해야 하며 삼산면사무소 (061-690-2607)나 청해진해운(061-663-2191)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한편 올해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축제'에서는 거문도 고유의 전통과 섬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1호인 '거문도 뱃노래 시연'을 비롯해 '전통 때매 노젓기 체험', '뱃놀 썰매고 고등잡기체험', '갈치 배승선 낚시체험' 등의 행사가 진행되며 100년 역사를 가진 거문도 등대까지 왕복하는 등반대회도 열린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정약용 선생 미공개 유물 54점 공개

내달 8일부터 전시

강진군이 오는 31일 다산 정약용 선생의 미공개 유물 54점을 언론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물은 ▲다산학예의 뿌리를 집대성한 '형친유목(賻親遺墨)' ▲다산이 마지막 제자인 윤종진에게 준 '예설(禮說)' ▲윤정기

가 그린 '일본어도(日本興圖)' 등 54점이다.

이번 유물 공개는 다산과 관련된 학술 세계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 유물들을 제 12회 청자문화제 기간인 오는 9월8일부터 10월 7일까지 다산 유물전시관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무안 남약출장소 개소

무안군 남약출장소가 지난 24일 개소했다.

남약출장소 개소로 남약리 일대 주민들이 주민등록 및 호적신고, 상수도 민원 처리를 위해 삼향면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무안군은 남약출장소 설치로 인해 지난 6월 무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해 출장소 설치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 7월말 정기인사에서 출장소장과 직원을 배치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전남 해수욕장 을 490만명 찾아 경제 파급 효과 3,400억원 달해

올 여름 전남도 내 해수욕장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 활황에 효과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6일 지난 7월 초·중순부터 도내 해수욕장 개장이후 8월 25일 현재까지 지역의 48개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은 490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00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

로 경제적 파급효과도 3천4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남도의 피서객 설문 조사와, 해양수산부가 피서비용과 체류기간·일행 수 등을 고려해 개발한 해수욕장 평가모델에 근거한 것이다.

특히, 일부 해수욕장은 이달 말까지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만여 명이 추가로 도내 해

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늘어난 것은 도내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예년보다 20여일 앞당겼고 해수욕장 주변 편의시설 확충과 환경개선은 물론 바가지요금도 없고 깨끗하고 친절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 해양레포츠 무료 체험행사, 전국 바다수영대회, 삼·갯벌 올림픽 축제, 신나는 고기잡이 바다체험, 전국 장애인 해변문화체험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도 올 여름 해수욕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지정기자 unipark@kwangju.co.kr